

정책현안과제 연구

2013. 4. 30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 방향

연구자 : 여형범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 방안

여형범 (충남발전연구원)

<요약>

- 충남의 곳곳에 산재한 자연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연환경보호지역을 비롯한 자연유산 지역 내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 자연유산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실천들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 여력과 권한이 부족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접한 타 시·군, 충청남도,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수적이며, 지역개발, 농업, 도시계획,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은 기존 박물관처럼 건물 내에 어느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일정한 '영역'에 산포되어 있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유산 및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임
- 이러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은 행정 경계와 부문별 칸막이를 뛰어

넘어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과제로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에코뮤지엄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제시하였음

1. 들어가는 글

- 에코뮤지엄은 기존 박물관처럼 건물 내에 어느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일정한 '영역'에 산포되어 있는 유산이나 무형의 기억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유산 및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박물관임
 - 기존 박물관의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박물관 활동이 행정구역, 전문가, 유산을 수집하고 전시한 박물관 건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에코뮤지엄은 수집,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박물관 활동이 유역, 문화권, 언어권 등의 영역, 지역공동체, 현지에 보존된 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¹⁾
 - 전통적인 박물관들은 고급 문화를 선호하는 반면 에코뮤지엄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인식 및 해석하고, 커뮤니티 스스로의 유산 통제와 참여 증진을 촉진하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물건(commonplace)을 중요하게 다룸²⁾
- 이러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은 행정 경계와 부문별 칸막이를 뛰어넘어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 국내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은 자연환경 부문에 국한되어 접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에코뮤지엄은 자연, 생태, 경관, 역사,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부문들을 통합해서 접근함으로써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국내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이 행정 경계 내에 국한되는 반면 에코뮤지엄은 행정 경계를 넘어 동일한 특징을 갖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은 개발의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서 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며, 보전이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국내 에코뮤지엄 관련 기존 문헌들은 에코뮤지엄을 다소 정형화된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에코뮤지엄을 구성 요소 측면에서 영역(territory), 거점박물관(core museum), 지역유산(satellite), 탐방로(discovery trail)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
 - 거점박물관은 에코뮤지엄의 본부로서 실물 전시는 하지 않으며 지역유산 및 접근방법을 소개 안내하는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수행, 지역유산은 현지에서 보존되는 에코뮤지엄의 전시품으로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으로 구분, 탐방로(trail)는 거점박물관과 지역유산을 잇는 길로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지역의 유산을 견학하고 실제 체험하는 관광루트
 - 하지만 거점박물관, 지역유산, 탐방로 등으로 구성된 에코뮤지엄이 전형적인 에코뮤지엄 형태는 아니며 지역 여건에 따라 고정된 위치의 박물관 건물이 없는 에코뮤지엄처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에코뮤지엄이 존재함

- 이 글에서는 에코뮤지엄의 구성 요소나 형태보다는 에코뮤지엄의 원

1) 리바드(Rivard, 1985; 125)는 전통적 박물관(건물+수집+전문가+대중)과 에코뮤지엄(영역+유산+기억+주민)을 비교하면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한 지리적 범위로서 영역(territory), 건물에 수집된 유물이 아닌 영역 내 산포된 유·무형 유산의 현지 보전, 전문가와 박물관 관람객의 관심과 시선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시선에 의한 활동을 에코뮤지엄의 특징으로 꼽음

2) 에코뮤지엄은 자연환경(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산업유산, 문화유산 등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자연환경(자연유산)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은 충남의 산업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방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많은 에코뮤지엄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칙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에코뮤지엄은 현재 이를 직접 표방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례들에서 그 원칙과 실천들이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있음
- 에코뮤지엄을 도입하거나 조성하는 것에 앞서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기초로 기존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에코뮤지엄 조성은 원래 추구하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건물, 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 2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3절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원칙을 정리한 후, 4절과 5절에서는 에코뮤지엄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6절에서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 현황과 과제들

1)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현황

○ 전 세계 국가들은 차이는 있지만 자연환경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보존지역, 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³⁾

- 국내 자연환경 보호지역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을 포함
-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랍사르협약에 의한 랍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의 지질공원 등 국제 보호지역도 지정되어 있음

○ 충청남도 내 주요한 자연환경들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충남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총 22개소 17.66㎢로 면적 기준으로 전국(705.93㎢)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충남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는 2010년 현재 전남(87개소), 경남(45개소), 인천(29개소)에 이어 4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전남(167.504㎢), 인천(131.648), 경북(129.417㎢), 경기(82.508㎢) 등과 큰 차이를 보이며 8위에 그침
- 충청남도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2010년 현재 63곳(98.3㎢)으로 개소 기준으로는 전국 최고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에 이어 4위 수준임

3) UN환경계획에서는 보호지역을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보호될 수 있도록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리되는 육지, 담수, 해수나 하구의 일정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UNEP, 1993).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보호지역을 합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 수단을 통하여 관리되며, 생물다양성, 자연, 관련 문화 자원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제공된 육상 또는 해양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IUCN, 1994).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보호지역을 특수한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 조절,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으로 정의함(UNEP, 2006).

<표 1> 충남의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2010년 현재)

구분	전국		충남	
자연환경보전지역	240개소	706km ²	22개소	17.66km ²
-생태·경관보전지역	35개소	363km ²	2개소	0.76km ²
-습지보호지역	28개소	333km ²	2개소	15.37km ²
-특정도서	177개소	10.68km ²	18개소	1.53km ²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89개소	894km ²	63개소	98.3km ²
자연공원	78개소	7,860km ²	6개소	502km ²
-국립공원	20개소	6,581km ²	2개소	422km ²
-도립공원	31개소	1,040km ²	3개소	78km ²
-군립공원	27개소	239km ²	1개소	2km ²

- 충남의 곳곳에 산재한 자연환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곳은 없음⁴⁾
 - 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 전국 보호지역의 면적을 2009년 10만ha에서 2020년 15만ha, 2050년 25만ha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어 향후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가 2014년 생물다양성 총회를 유치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클 것으로 예상됨

4)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바람, 둔촌동 자연습지, 남산 등 17곳을 자체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울산시(태화강), 강원도(대덕산·금대봉), 전남도(광양백운산), 경기도(조종천상류), 경남도(거제시 고란초 서식지)도 한 곳씩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대구시(달성하천 습지), 대전시(대청호 추동습지), 인천시(송도갯벌)가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호지역을 비롯한 자연유산 지역 내 또는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자연유산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동의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 많은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이 행정이나 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인 참여에 그쳐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함
 - 예를 들어 환경부와 경기도는 DMZ 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을 개발 규제 장치로 인식하여 반대
- 자연유산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실천들을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을 성공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요한 성공 요인임
 -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협약, 주민감시단, 생태여행, 마을기업 등 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행정이 아니라 시민단체, 주민조직, 전문가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연환경 보전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과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기금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크거나 훼손 위협에 놓인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함⁵⁾

5) 한국내셔널트러스트나 국민신탁법은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국민신탁법에 의해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설립.

-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보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할 가치가 큰 자연환경이 인간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토지의 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음(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의 경우 매화마름이 자라는 논에서 재배한 쌀을 '매화마름쌀'로 브랜딩하여 전량 판매)
- 또한 재정 여력과 권한이 부족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인접한 타 시·군, 충청남도,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상호지원이 필수적임
 - 국내 자연환경 보전의 성공적인 사례 지역인 전남 순천시 순천만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은 시·군이 주도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지원 프로그램, 랍사르 습지 지정 등 국제적인 협력, 인근 지역 지자체와 함께 하는 광역적인 자연환경 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음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활용 정책은 지역개발, 농업, 도시계획,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정책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상이한 법, 예산, 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임
 -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만으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행정구역 경계와 부서별 칸막이 업무를 넘어서는 공동 활동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동기 부여가 필요

2) 충남 자연유산 관련 현안들

- 서천군 국립생태원
 - 서천군은 국립생태원을 대안사업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국립생태원이 서천군의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음
 - 환경부가 국립생태원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기에 서천군민들이 국립생태원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국립생태원이 서천군을 비롯한 충남의 자연유산 보전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천군 및 충남의 자연유산 거점들 및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예산군 황새마을
 - 예산군은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유치함
 - 황새의 서식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새마을을 조성하여 유기농, 농수로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
 - 황새마을의 생태적 조건이 황새가 먹이를 섭취하고 번식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황새는 생활공간이 예산군을 벗어나 인근 시·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황새복원은 예산군만의 사업이 아닌 황새 생활권의 모든 시·군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 예산군은 타 시·군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
- 서해안 철새 도래지 관리
 - 충남의 경우 넓은 면적의 농경지, 호소, 해안선이 발달해서 오리기러기, 섬금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가 위치하며, 아산만, 천수만, 금강하구, 유부도 등은 섬금류의 동아시아 중간기착지이자 오리기러기

류의 월도 서식지으로써 가치가 매우 큼

- 전 세계 가창오리 생존개체수의 90%가 금강하구 인근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이 유부도 조간대에 중간기착하며,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큰고니, 개리 등이 서해안 일대에 서식함
- 하지만 서해안 지역의 간척으로 인한 서식지 여건 변화, 연안 수질 악화, 먹이 감소 등으로 인해 철새 서식지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
- 농경지, 호소, 연안 관리를 위해서는 충남 내 특정 시·군에 국한되는 대응이 아니라 서해안 시·군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금강 하굿둑

- 1990년대에 금강 하구역의 홍수 및 염해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수질 악화, 토사 퇴적, 회류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발생
-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청양군 등 금강 하류 시·군은 금강 하굿둑의 구조 개선을 통한 해수 유통 및 수질 개선을 요구하지만 전라북도 군산시는 농업용수 이용을 이유로 반대
- 금강 하구역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금강 하굿둑의 기존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을 유지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한 금강 하구역 전체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

○ 걷는 길 조성 사업

- 제주 올레길의 성공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은 독자적인 길을 조성하고 있음
- 충남 지역에는 태안 바닷길을 걷는 '태안바라길', 충남의 옛 성을 따라 걷는 '고성가도', 공주와 부여의 핵심 여행지를 잇는 '백제길', 공주 금강 및 연미산을 따라 걷는 '곰나루 명승길', 부여의 백제 문

화를 경험하는 '사비길' 등이 조성되어 있음

- 홍성군,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충남 서부권 자치단체는 내포문화권에 조성되어 있는 내포문화숲길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
- 하지만 전국의 걷는 길 조성 사업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이용,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가치는 사라지고 관광상품화에 치중되고 있으며 걷는 길 이용자의 안전 문제, 관리·운영의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
- 걷는 길 조성은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정체성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걷는 길 조성 계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그림 1>내포문화
숲길

<그림 2>백마강길
(천정대)

<그림 3>백마강길(구
드레너루)

3.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다양성

- 에코뮤지엄의 원칙은 에코뮤지엄 주창자와 적용 지역, 적용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음
- 에코뮤지엄 운동의 뿌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갈 수 있으나 에코뮤지엄(ecomusee)란 단어는 1971년 바린(Hugues de Varine)이 처음 사용
- 현재 에코뮤지엄 개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나타난 "신박물관학"으로 알려진 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표현인데, 신박물관학은 박물관들이 어떻게 소외된 계층을 돕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음
- 1970년대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과 삶의 터전인 공간 전체를 박물관으로 보고,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유산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에 편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채택되어 왔음
-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에코뮤지엄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요 목적으로 제시
- 최근에는 에코뮤지엄 구성을 통해 지역의 독특성을 창출하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생태여행, 책임여행, 공정여행 등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음

<표 2> 에코뮤지엄의 기원과 다양성

<p>○ 데이비스는 『Ecomuseums: A Sense of Place』에서 에코뮤지엄의 기원과 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Davis, 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박물관학은 박물관 실천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 출현을 대표하며, 새로운 박물관들은 에코뮤지엄이나 커뮤니티 뮤지엄을 포함해서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프랑스에서 나타난 첫번째 에코뮤지엄들은 유산의 공공적 소유를 위한 인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에코뮤지엄들은 장소의 특별한 본질과 지방 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계되었으며 지역발전을 보조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음 - 에코뮤지엄은 상이한 방식들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원래 모형에 완전히 들어맞는 에코뮤지엄을 찾기는 어려우며, 21개의 '에코뮤지엄 원칙들'은 지방의 필요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사용됨 - 몇몇 국가들에서는 유산 사이트들을 한데 묶어서 전일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에코뮤지엄의 분산 모형이 우선시되었음 - 많은 개도국에서 에코뮤지엄은 주변화된 공동체들(소수민족을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에코뮤지엄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문화적 차이를 환호하는 한편 유산을 활용해 문화관광이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에코뮤지엄 특징을 지닌 박물관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함 - 에코뮤지엄 철학의 요소들은 전통적인 박물관에서도 채택되어 왔는데, 이러한 에코뮤지엄의 다양화와 기존 박물관들의 에코뮤지엄 특성 채택은 에코뮤지엄 개념에 혼동을 야기함 - '에코뮤지엄'이라는 제목은 에코뮤지엄 원칙이나 실천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채택될 수 있는데 이를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체계가 없기 때문임. 에코뮤지엄의 자기 평가 도구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만족시켜야할 운영적 표준이 없음. 몇몇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표준을 요구함. - 지난 10년 동안 에코뮤지엄 실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유산의 지역공동체 소유의 촉진과 이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용했다는 점임 - 에코뮤지엄에 대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이해되는 정의와 역할들을 여전히 학계와 실천가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개념을 사용하는 몇몇 조직들은 에코뮤지엄의 전략 개발과 운영에서 지역공동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임
--

- 바린은 에코뮤지엄의 특징을 고정시키는 개념 정의에 반대하며 에코뮤지엄을 박물관 활동과 지역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으로 볼 것을 제안(de Varine, 1992; Davis, 1999: 69)
- 보렐리와 데이비스는 에코뮤지엄 실천을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을 식별하고 보전하고 해석하고 관리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정의
 - 동적인 과정이라 함은 에코뮤지엄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화, 토론, 참여 등의 행위에 따라 예기치 않은 경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
 - 궁극적으로 이런 동적인 과정의 목표는 특정 영역에 사는 지역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서, 주민은 행정과 전문가와 함께 의사결정과 실천 과정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산의 보전이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
 - 식별, 보전, 해석, 관리한다는 것은 유산 자원이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논쟁과 합의 과정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뜻함
- 이처럼 에코뮤지엄의 원칙은 에코뮤지엄은 적용되는 지역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원칙들이 있음(<표 2> 참조)
 - 특히 ‘공동체’(community) 참여, 행정구역이 아니라 특정 정체성을 지닌 ‘영역’(territory)에 기초한 경계, 특정 건물에 모아 놓은 유물이 아닌 현지에 보존된 유형적·무형적 ‘유산’(heritage)을 공통적으로 강조함⁶⁾

6) 데이비스는 ① 전통적인 경계로 규정되지 않는 ‘영역’의 채택, ② 현지 내 보전 및 해석에 연

결되는 ‘분산된 사이트’ 정책의 채택, ③ 전통적인 사이트 소유권 관점 대신 사이트의 보전과 해석은 연결(liaison), 협력, 파트너십 개발에 의해 수행, ④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위해 에코뮤지엄 활동과 문화 정체성 형성에 지역 주민들을 포함, ⑤ 학제간 해석 및 전일적 해석의 잠재력들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음. 보이란도 비슷하게 영역, 분산(fragmentation), 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해석, 에코뮤지엄 소비자의 본성, 지방 민주주의와 커뮤니티 권한 강화를 특징으로 꼽음.

<표 3> 에코뮤지엄 원칙

- 지역 공동체가 에코뮤지엄을 관리하느냐?
- 에코뮤지엄은 민주적인 태도로 대중 참여를 허용하느냐?
- 지방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공동의 소유와 관리가 있느냐? 예를 들어 이중투입체계(double input system)이 있느냐?
- 산출물보다 과정을 강조하느냐?
- 지역의 장인, 예술가, 작가, 활동가, 음악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느냐?
- 에코뮤지엄이 적극적인 자원활동에 상당히 의존하느냐?
- 지방 정체성과 장소감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 에코뮤지엄이 공유된 특징에 의한 지리적 영역을 포함하느냐?
- 에코뮤지엄이 과거, 현재, 미래 관점을 다루느냐? 예를 들어 공간적이고 시간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느냐?
- 건물과 사이트들의 허브와 안테나로 구성된 분산된 박물관이냐?
- 에코뮤지엄이 유산 자원의 현지 내 보존, 보전, 보호를 촉진하느냐?
- 만질 수 없는 유산 자원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 에코뮤지엄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느냐?
- 에코뮤지엄 사이트는 사이트 자체와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개발을 허용하느냐?
- 에코뮤지엄 사이트는 과거와 현재 생활 및 환경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문서화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증진하느냐?
- 에코뮤지엄 사이트는 지역 주민인 전문가에서부터 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연구를 증진하느냐?
- 에코뮤지엄은 다학제적이고 간학제적인 연구를 촉진하느냐?
- 문화/자연 관계를 해석하는 전일적인 접근이 있느냐?
- 기술/사람, 자연/문화, 과거/현재 사이의 연결이 사이트에서 해석되느냐?
- 사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유산 및 문화 관광을 촉진하느냐?
- 에코뮤지엄이 자긍심, 재생, 경제적 소득 등 지역 공동체에 편익을 가져다주느냐?

4. 에코뮤지엄의 국외 사례

- 이번 절에서는 에코뮤지엄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함

1)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 프랑스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ere)와 바린(Hugues de Varine)은 대안적인 박물관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에코뮤지엄 철학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킴
 - 당시 프랑스는 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들, 특히 사회사, 과학, 자연사 등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들이 활력을 잃고 쇠퇴해가는 상황이었음
 - 많은 유산과 박물관 전문가들은 에코뮤지엄 아이디어가 자신들의 새로운 박물관 실천을 뒷받침한다고 믿었으며, 신박물관학(new museology), 통합적 박물관(integrated museums), 지역공동체(communitiy) 주도 등에서 촉진된 아이디어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특히 농촌과 탈산업지역에서 에코뮤지엄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져가는 민속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음
 -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둔 도시 박물관(urban museum), 농업박물관, 산업박물관, 특정 생물종 박물관, 전통건축물 박물관, 준-자연경관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코뮤지엄이 등장하고 있음
- 1990년대 초에 프랑스 문화부의 문화재국(DMF)은 사회역사와 지역공동체 생활을 다루는 모든 박물관들(역사박물관, 인류학 및 민속지학 박물관, 해양박물관, 생활사박물관, 에코뮤지엄 등)을 사회박물관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림

- 박물관조사국장(IGM)인 Germain Viatte는 이를 미래의 박물관들이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지정은 사회박물관을 예술 박물관 등의 고급박물관과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며, 바린은 이런 결정이 에코뮤지엄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적 결정이라고 비판
 -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은 주제별 또는 영역별 분류, 지역사회 배태, 경제적 및 사회적 재생 기능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에코뮤지엄에 비해 사회박물관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공동체 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또한 사회박물관 개념은 박물관 조성 및 활동에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에 만들어진 지역공동체 박물관들은 에코뮤지엄보다는 사회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됨(Boylan, 1992)
 -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1998년 60여개였던 에코뮤지엄은 2010년에는 에코뮤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최소 87개 박물관으로 늘어남
- 문화재국의 결정 이후 에코뮤지엄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박물관들과 더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함
- 1991년 문화재국이 주최하고 Mulhouse에서 열린 콜로키움에서 다양한 사회박물관 큐레이터들이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결국 이 박물관들과 에코뮤지엄들이 참여하는 FEMS를 설립하게 됨
 - 2010년 현재 FEMS는 200개 박물관, 1500여 직원과 3000여 자원활동가를 대표하는 140여 회원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FEMS 회원 박물관 중 54%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46%는 민간이 운영
 - FEMS는 회원 박물관들이 매 해 4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박물관 입장객 수의 10%에 해당한다고 예측함

- FEMS의 역할은 주로 토론회 및 콜로키엄 조직, 설문조사, 훈련 및 자문, 회원 조직 지원, 출판 등이며,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박물관과 관광의 관계, 등 FEMS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2)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

-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문화 재발견 운동이 활발했음
-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작은 "농업 생활 박물관"들이 많이 세워짐
 - 하지만 이러한 박물관들은 기존 박물관학(museology)의 기준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평가에서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런 작은 박물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역사회 역량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됨
 - 1980년대에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유산들은 문화 산업의 유용한 자원이거나 관광시장의 자원 정도로 좁게 이해되었음
- 1990년대에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정치적 분권(devolution)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 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문화가 주목 받기 시작함
- 중앙정부 예산의 2% 정도가 지역의 문화 부문에 지출되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고, 중앙정부는 지역경제개발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함
 - 사소한 유산들(오래된 농가, 방앗간, 산업유산, 관개 시스템, 그 외 비가시적 유산 등)이 그 대상으로,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 등장한 지방 권력이 이러한 유산의 발굴과 유지에

- 대한 기회를 담당했음
- Argenta (Emilia-Romagna), Casentino (Tuscany), the Vanoi and Giudicarie Valleys (Trentino), the Elvo Valley (Piedmont) 등 첫째 세대의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짐
- 이 사례들은 국내외 다른 박물관 운동들과 연결되면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에코뮤지엄유형의 박물관 도입을 확산시킴
-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은 수용이 매우 늦었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법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피에몬테(Piedmont)와 트렌토(Trento)에서는 각각 1995년과 2000년에 에코뮤지엄의 설립과 발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다섯 지역에서 조례가 통과됨
 - 이 지원 법들은 에코뮤지엄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을 촉진하였으며 다른 지역들의 에코뮤지엄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음
 - 농촌지역의 경제를 연구하고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피에몬테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 IRES(Instituto di Ricerche Economico Sociali del Piemonte)는 에코뮤지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이탈리아 피에몬테와 유럽에서 에코뮤지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IRES는 유럽의 문화 관광 활성화와 에코뮤지엄의 관계를 강조
- 1999년 15개에 불과했던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은 2006년 피에몬테에서만 50개로 늘어남
 - Ecomuseum Observatory(2010)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는 피에몬테의 38개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전역에 142개의 에코뮤지엄이 운영되었고 준비 중인 에코뮤지엄을 포함하면 193개에 이름
- 2004년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그룹들은 유럽 전체의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트렌토(Trento)에서 진행

-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스웨덴의 12개 에코뮤지엄이 참여
- 3일 동안의 집중된 토론을 통해 선언문을 채택. 8개의 활동 그룹이 에코뮤지엄에 영향을 미치는 8개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구성됨
- 2005년 Argenta의 에코뮤지엄에서 활동 그룹의 연구 결과가 발표됨
- 이후 이 워크숍은 매년 열리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만나고 피드백하고 의사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워크숍에서 활동 그룹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어떤 그룹들이 연구를 계속할 지 새로운 활동 그룹을 만들어야 한 지 등을 논의
- 2006년 스웨덴 Ekomuzeum Bergslagen에서 열린 워크숍 이후 이탈리아와 폴란드,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가 매우 빠르게 성장함
- 2006년 "Local Worlds"라는 이름으로 유럽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이탈리아는 21개 에코뮤지엄들이 Mondì Locali라는 이름의 지부를 만들었음
 - 유럽 네트워크는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이 중심이 되었는데 2008년 유럽 네트워크에 참여한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은 25개, 이탈리아 외 에코뮤지엄은 15개였음
 - 유럽 네트워크는 선언문을 공유하고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느슨하게 구조화된 조직이었던 반면 이탈리아의 네트워크는 매우 구조화된 조직으로 Mondì Locali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규제, 인터넷 사이트와 뉴스레터, 몇 개의 활동 그룹, 공유된 활동들을 통제하는 규칙 등이 존재함
- Mondì Locali는 이탈리아 내 에코뮤지엄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 매년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그룹과 지방 리더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느리지만 서로를 알게 하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에코뮤지엄 직원들을 위한 많은 교육 과정 개설하고 교육 매뉴얼을 발간하고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2007년 처음 시작된 국가 경관의 날(National Landscape Day) 행사를 활용하여 에코뮤지엄의 활동과 수단들을 홍보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30개 그룹 가운데 29개 그룹이 에코뮤지엄이었으며, 그 가운데 19개가 Mondi Locali의 회원 단체였음
-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는 하향식 방식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지역별 상향식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형태나 운영 방식이 상이함
- 먼저 공통된 활동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기존에 이루어지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립하고 있으며, 자원 목록의 공유, 동일한 언어, 활동 스타일의 수렴, 생각과 행동의 반복된 방식 등을 만들어냄
- Mondi Locali의 회원인 에코뮤지엄과 비회원 에코뮤지엄, 다른 박물관 사이의 관계는 지역별로 상이함
- Trentino에서는 모든 법적으로 인식된 박물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박물관들 사이에 갈등이 없음
 - Piedmont에서는 지방정부가 국가 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로 Mondi Locali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음
 - Lombardy는 지방정부의 국가 박물관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편이며 Mondi Locali와 관계도 좋은 편임. 국가 네트워크의 박물관 두 곳이 Mondi Locali에도 참여
 - Friuli에서도 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잠재적 갈등이 존재

- Tuscany와 Puglia에서는 에코뮤지엄을 규제하는 법이 없으며 비공식적 지역 조정 위원회가 Mondi Locali의 원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됨

3) 일본의 에코뮤지엄

- 일본에서는 에코뮤지엄을 ‘지역 통제로 박물관’ 또는 ‘지붕 없는 박물관’ 등의 이름으로 부르며 농촌의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고 있음(여경진, 2007)
- 일본에서는 에코뮤지엄이 1970년대 ‘환경박물관’으로 소개되었으나 당시에는 관심을 얻는데 실패했고, 1980년대 일본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소개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지자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에코뮤지엄이 크게 확산됨(Ohara, 2006)
 - 기존 지역개발이 새로운 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 온 것에 비해 현재는 지역에 남아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박물관도 지역 박물관 건설 붐이 마무리된 후 기존의 다양한 유산을 얼마나 보다 잘 활용할지가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과의 상호 교류나 주민 사이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코뮤지엄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원을 조율하는 해결책으로 논의됨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사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 사회는 에코뮤지엄의 활동 중에서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정체성 확보를 중시하고, 지역에 사는 보람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적극 제공

- 일본에 에코뮤지엄을 촉진하는 공식적인 체계는 없지만 1998년 농림부는 '농촌환경박물관'(rural environmental museum)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환경, 문화 경관, 전통 문화의 보전을 촉진하는 박물관 건립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50여개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
 - 이 사업은 전통농업을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경관의 독특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나 준-공공기관들이 박물관들을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이 하향식으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 1995년 일본 에코뮤지엄 학회(Japanese Ecomuseological Society, JECOMS)가 설립되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Journal of the Japanese Ecomuseological Society라는 학술지를 발간
 - JECOMS는 2002년 '일본 에코뮤지엄 지도'를 발간
 - 타마강과 연계된 산업유산과 종교적 건물이 복합된 사이트로서 타마가와(Tamagawa), 멸종위기종(황새) 보전과 관련된 고우노토리 에코뮤지엄(Kounotori Ecomuseum), 도쿠시마현의 아산 라이브 박물관(Asan Live Museum) 등을 소개

4) 중국의 에코뮤지엄

- 중국은 소수민족 문화의 보존과 증진 필요성을 강조
 -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소수민족이 사는 격오지들이 중국 에코뮤지엄 정책의 주요 대상지임
 - 중국에서 에코뮤지엄은 가난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농촌과 소수민족 문화를 관광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에코뮤지엄은 소수민족들로 하여금 문화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 개발을 수행하는 도구로 제시됨
 - 중국의 첫번째 에코뮤지엄은 귀주성의 소가(Soga)에 설립되었는데 노르웨이 정부의 전문가와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박물관협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노르웨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Liuzhi 원칙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중국 내 에코뮤지엄 사업에 적용하였음(<표 3> 참조)
- 중국의 에코뮤지엄은 주로 분산 모형(fragmented model)을 채택하였음
 - 분산 모형은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관광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채택된 넓은 지리적 공간에 유산 사이트들이 분산되어 있음
 - 안내, 기록, 전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리셉션 센터(박물관 또는 문화 센터)가 존재
 - 다만 중국의 에코뮤지엄은 소수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 에코뮤지엄이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에코뮤지엄과 차이가 있음
- 중국의 에코뮤지엄은 Liuzhi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중국 내 소수민족의 생활 문화가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중국의 에코뮤지엄은 위계적인 행정 조직을 통해 하향식으로 전개되었기에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에코뮤지엄의 운영과 전략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화 관광을 통한 경제적 편익이 지역공동체에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음

<표 4> 중국 에코뮤지엄의 Liuzhi 원칙

<Liuzhi 원칙>

- 마을 주민들이 문화의 참된 주인이며 그들 스스로 문화를 해석하고 정당화할 권리를 지님
- 문화의 의미와 가치는 지식에 기초한 인식과 해석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음. 문화적 능력이 증진되어야 함.
- 대중 참여는 에코뮤지엄에 반드시 필요함. 문화는 공통의 자산이며 민주적인 자산이므로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관광과 문화의 보존에 갈등이 있을 때는 문화의 보존이 우선되어야 함. 진짜 유산은 판매되어서는 안 되며, 전통적 기술에 기초한 기념품들의 생산이 증진되어야 함.
- 장기적이고 전일적인 계획이 가장 중요함. 장기적으로 문화를 파괴하며 얻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지양되어야 함.
- 문화 유산 보호는 전체 환경 접근에 통합되어야 함. 이런 점에서 전통적 기술들과 물질들이 필수적임.
- 방문객들은 조심스럽게 행동할 도덕적 의무를 짐. 그들은 에코뮤지엄 내에서 행위 규칙을 제시받을 것임.
- 에코뮤지엄을 위한 바이블은 없음. 특정 문화와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임.
- 사회 발전은 살아있는 세계 내에서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임. 전통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웰빙이 증진되어야 함.

5. 에코뮤지엄의 사례의 시사점

- 에코뮤지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코뮤지엄 원칙에 충실한 박물관들이 있음
 - 미국의 이웃 박물관(Neighbourhood museums), 독일, 특히 베를린의 도시 헤이마타 박물관(Heimatmuseums), 중남미, 특히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의 지역공동체 박물관 등
 -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은 이러한 다양한 박물관 운동을 포괄하며,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신박물관학 흐름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의 원칙과 실천은 197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박물관 운동의 한 조류였으나 현재 많은 박물관 조성과 활동들에서도 에코뮤지엄 원칙들이 공유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박물관 조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시뿐만 아니라 이동 전시, 체험 교육 등 일반인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표 4>, <표 5> 참조)
 - 다만 여전히 행정, 전문가, 박물관 건물, 유물이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박물관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

<표 5> 울산박물관 사례

- 공사 단계부터 유물 수집, 보관,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사업 추진.
 - 박물관추진단을 구성(14명)하고 서울역사박물관 김우림 관장을 추진단장으로 영입
 -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 울산 기업이 참여하는 박물관,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을 목표로 제시
 - ‘시민 기증 운동’ 전개하여 1,932점을 기증 받아 전시품목 중 80~90%가 기증 유물
 - 기업들과 MOU를 맺어 산업사관 마련
 - 2011년 역사관, 산업사관, 어린이 체험관(해울이관)으로 구성된 박물관 개관
-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성인을 대상으로 박물관대학(UMA), 전통문화 체험교실, 문화유적 답사, 도슨트(전시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박물관 놀이교실, 어린이 1일 박물관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FUN FUN MUSEUM, 특수 계층을 위한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 문화프로그램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울산시립예술단과 연계하여 Museum Saturday Concert 진행

<표 6> 영월 박물관고을 사례

- 영월군은 지역내 산재해 있는 소규모의 박물관들을 연계 및 집적화하고 향후 입체적인 배치로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을 시행 중(이영주, 2012).
 - 2005년 신활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지역특화발전특별법에 의한 ‘박물관고을특구 영월’로 지정되었고, 2기 신활력지원사업 완료 후 2011년부터 신활력지원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이관됨
 -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따라 영월군에는 2012년 12월 현재 20개의 박물관이 운영 중이며 4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
 - 20개 박물관 가운데 공립박물관이 6개(별마로천문대, 단종역사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동강사진박물관, 강원도탄광문화촌, 영월동굴생태관)이며 사립박물관이 14곳임
- 영월군은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지만 행정, 전문가, 박물관, 유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동체 참여, 현지 보전, 지역 정체성 등을 강조하는 에코뮤지엄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기존 박물관 활동이나 자연유산 보전 운동과 에코뮤지엄 실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기존 박물관 활동에도 영역, 공동체 참여, 유산의 현지 보전이라는 에코뮤지엄 원칙들을 적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
 -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사례와 같이 기존 박물관(협회)들과 에코뮤지엄의 공동 활동은 재정,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에코뮤지엄 활동의 지속성을 도울 수 있을 것임
- 지역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에코뮤지엄 원칙이 쉽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에코뮤지엄 실천을 구상할 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표 6> 참조)

<표 7> 에코뮤지엄 여건 분석

<에코뮤지엄 여건 분석을 위한 질문들>

- 사이트가 분산화되어 있느냐?
- 공감감을 나타내는 정부 의제, 정책, 법이 있는가?
- 지역적으로, 전통적인 유산 관리와 박물관 구조 및 실천에 반하는 대응이 있는가?
- 지방 박물관과 유산 부문의 전문가들이 에코뮤지엄 철학과 실천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에코뮤지엄 접근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가?
-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장소감(sense of place), 지역 문화 경관의 독특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 공유하는 지역 정체성이 있는가?
- 지방 수준에서 유산의 가치, 중요성, 사용이 인식되는가?
-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것으로 확인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만질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는 유산 자원들이 있는가?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기존 네트워크들이 있는가?
-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모으고 동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가?

6.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

1)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 에코뮤지엄 실천은 산림이나 유역 등 자연환경을 경계로 하는 지역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음(<표 8> 참조)
 -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새롭게 행정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자연환경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임

-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주민들의 소속감과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표 8> 지역정체성 형성의 방안으로서 에코뮤지엄 사례

- 캐나다 미라미치 에코뮤지엄(Miramichi Ecomuseum)
 - 캐나다 미라미치 에코뮤지엄은 사람들과 강의 유대를 강화하고 새롭게 합병된 미라미치 시의 지역 공동체 감정을 강화하기 위한 미라미치 수변 전략 계획의 일부로 1999년 구상되었음
 - 에코뮤지엄의 핵심은 열 한개의 문화 유산, 55km에 달하는 마라미치 강의 자연 경관, 수상택시 체계와 탐방로 네트워크임
 - 에코뮤지엄의 목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활양식을 보전하고 공유, 특별한 마을 유산을 보전, 관광, 소규모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을 통한 경제 재활성화, 젊은이들을 도시에 붙잡아두기임
-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아르젠타 에코뮤지엄(Argenta Ecomuseum).
 - 에밀리아-로마냐의 Ferrara시는 1930년대 대규모 간척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로서, 시 정부는 이 도시가 역사가 짧고 전통이 없으며 전설이나 이야기도 부재하여 공간계획에 참여적 기법을 적용하기로 결정
 - 아르젠타 에코뮤지엄은 마을지도(parish map)를 활용하여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식별하는 과정을 도우면서 계획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
 - 이탈리아에서 마을지도를 공간계획에 이용한 첫번째 사례임

- 충남은 15개 시·군의 생태지도 작성과 충남 전체의 광역생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고 있기에 이를 지역사회 지도 제작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수법 중 하나인 지역사회 지도 작성 프로젝트에 생태지도를 활용(<표 9>, <표 10> 참조)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및 생물들을 표시하는 다양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에 및 생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
-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측 지도뿐만 아니라 영상, 소리, 사진, 그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지도에 반영
- 자연환경과 생물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설, 이야기, 노래, 민속 등 문화들을 함께 조사하여 수록
- 이러한 지도 작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장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지할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

<표 9> 이탈리아 Elvo and Serra 에코뮤지엄의 지역사회 지도 작성 프로젝트

- 이탈리아 Elvo and Serra 에코뮤지엄에서는 집합적 기억을 되살리고 획득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도화(Community Mapping) 프로젝트가 2002년에 시작되었으며 4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전통적인 지도가 아니라 구술 녹음이나 영상 기록 자료를 사용
 - 지방의 장인들이나 농부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계곡 내 학교들에서 상영되며 장인들이 등장하여 질문에 답하기도 함
 - 학교들은 저마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자신들만의 지도나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함
- 이 프로젝트의 수집 기간은 2006년 끝이 났지만 수집된 자료들은 여전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벤트 등에서 주민들의 의사소통이나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표 10> 이탈리아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의 지역사회 지도 작성 사례

-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은 파라비아고 의제21의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에코뮤지엄 실천계획을 만들었으며, 파라비아고 시 의회는 2008년 5월 에코뮤지엄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킴
 - 에코뮤지엄은 자연경관, 농촌경관뿐만 아니라 파라비아고 시의 유산들을 재발견하는 문화 여행길로 인식되었음
 - 에코뮤지엄의 영역은 농촌과 자연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걸쳐 있으며, 물리적인 유산들(로마 유적, 방앗간, 교회, 고대 건축물 등)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영역의 집합적 기억(고대 지식, 전통 기술 등)을 포함
- 파라비아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고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원하는 핵심적인 유산들을 기초로 커뮤니티 지도(map of the community)를 만들었음
 - 지도에는 장소, 특징, 이름(방언), 전통 요리, 속담 등 지역과 주민들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김
 - 에코뮤지엄 포럼의 작업 그룹이 지도를 준비
 - 작업 그룹은 2006년~2007년 사이 지역의 핵심 장소(places of the heart)를 꼽고자 에코 포럼 참석자,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참가 학생 등에게 설문 조사 시행
 - 이 작업 그룹은 협회, 시 기술자, 정치인, 주민, 이웃 도시의 관계자 등이 참여
 - 초기 지도 작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성인들의 참여를 유도함
 - 지역의 예술가인 Patrick Cross가 지도 디자인을 책임짐
 - 이 지도 작성 이후 '소리 지도'(sound map)와 웹 상에서 수정이 가능한 지도(interactive map)도 만들어 공개함

2)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에코뮤지엄은 인구가 줄고 경제가 쇠퇴하고 농경문화를 비롯한 각종 생활문화가 사라져가는 농촌에서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이나 생태관광을 비롯한 로컬푸드, 지역브랜드, 6차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수 있음
-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시키는 활동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 (<표 11> 참조)
 - 루니지아나 산(Lunigiana Mountain) 에코뮤지엄은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쿵을 복원하고 토종쿵을 이용한 메뉴를 로컬푸드 식당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더 나아가 빵 생산 과정에 지역의 전통 밀을 제도입하고자 함
 - 또한 평가 작업을 통해 지역의 숲 면적 중 68%가 바이오매스와 생태여행에 적합한 자원임을 보여주고, 물, 선사, 중세 예술, 밤나무, 바위, 경제와 산업 고고학, 농업 경관, 나치 파시스트 대량학살 기억, 귀족들의 마을을 엮어내는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 이탈리아 카센티노 에코뮤지엄(Casentino Ecomuseum)에서도 삼림과 목재, 특히 밤나무에 기초한 지역 경제가 고령화, 임업 기술 상실, 토지 포기 등에 의해 위협받게 되자 주민들은 나무꾼들의 옛길을 복원하고 전통적인 돌 건조기를 수선하는 등 밤나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음
 - 고급 밤과 밤가루를 틈새 시장에 팔고 밤나무 칩은 건조기와 마을 집단 에너지 시설에 사용하였고, 마을에 밤을 이용한 식당을 열고, 문화와 유산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조직(Raggiolo Brigade)을 설립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활성화됨

- 영역, 공동체 참여, 유·무형 유산의 현지 보존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면 에코뮤지엄의 적용은 더욱 용이할 것임
 -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유산제도,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슬로푸드, 로컬푸드, 생태하천 조성, 생물종 복원, 6차산업화 등의 활동들은 에코뮤지엄의 원칙 및 특징들을 상당 부분 공유

<표 11> 자연유산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사례

- 베트남 하롱베이 에코뮤지엄
 - 하롱베이는 199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관광객 수의 증가, 동굴이나 석굴 접근성 증대 요구, 상업적 선박이나 관광용 배의 확대, 불법적이고 과도한 어업, 석탄 광산 등으로 인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에코뮤지엄이 대안으로 제시됨
 - 2001년 하롱베이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하롱베이 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 안에 에코뮤지엄 사업을 담음
 - 지방의 어업 공동체는 자신들의 자연자산과 문화 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에코뮤지엄 설립과 운영을 도왔으며, 어획량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함
- 스페인 발 베르니싸 에코뮤지엄(Ecomuseu Val Vernissa)
 -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의 발 베르니싸 에코뮤지엄은 지역 농민, 생산자, 주민들과 “유산목록”(Catalog de Patrimoni)이라 불리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들이 스스로 유산을 보호하고 커뮤니티를 위해 유산을 활용하도록 복돋음
 - 협정은 처음에는 농장, 에코뮤지엄, 유기농업에 전문성을 지닌 환경단체 사이에 맺어졌으며, 협정에 따라 농장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탐방로(discovery trail)를 만들고 관리하기로 하는 대신 2년 동안 12,000유로를 지원 받음
- 이탈리아 코르테밀라 에코뮤지엄(Cortemilia Ecomuseum)
 - 이탈리아 남 피에드몬트(Southern Piedmont)의 코르테밀라 에코뮤지엄은 점차 사라져가는 계단식 경관과 이로 인한 토양 침식 증가에 대응
 - "Ecomuseum of the Terraces and the Vine"은 옛 농장을 복원하고 커뮤니티 활동 센터이자 여행객들이 목을 장소로 사용하면서 일부 계단밭을 복원하여 재경작하고 틈새 시장에 팔 품질 좋은 레드 와인을 만들어냄

3)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 에코뮤지엄의 네트워크 또는 에코뮤지엄과 다른 박물관 운동의 네트

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프랑스어권의 FEMS는 1989년, 일본의 JECOMS는 1995년, 폴란드의 Ekomuzea는 2005년, 중국의 Ecomuseum Office는 2006년, 브라질의 ABREMS는 2007년에 형성한 바 있음
- 또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보전지역(MAB) 프로그램 등 에코뮤지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은 인간들의 활동에 의존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은 농민들이 전통적인 관리체제를 증진하고 전통 농가 건물과 마을숲을 복원하고, 농산물에 상표를 붙이는 활동들을 지원함
 - MAB 프로그램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여러 사이트들이 연계되어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보전 활동이 결합됨
 - 스웨덴 Kristianstads Vattenrike 에코뮤지엄은 MAB와 에코뮤지엄 실천이 강하게 연계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프랑스의 Cevennes 생물권보전지역과 국립공원도 사례로 들 수 있음
 - 유네스코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세계식량기구의 세계중요문화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등도 MAB의 취지와 유사함
 - 유네스코, IUCN, 세계식량기구 등 비교적 큰 국제기구의 활동 외에도 '커뮤니티에 기반한 보전 지역(Community-Conserved Areas, CCAs), 세계생태마을네트워크(Global Ecobillage Network, GEN) 등도 에코뮤지엄과 비슷한 자연환경 보전 사례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지방 커뮤니티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전하는 것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또 다른 예로 일본의 사토야마(Satoyama) 경관 정책도 사람과 토지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

- 충남의 경우에도 금강하구, 유부도, 서해안 갯벌 등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 중심의 하향식 과정보다는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을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

- 에코뮤지엄은 '실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단임
 - 재정, 기술, 인력 등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내야 함(대표적인 예로 Ekomuseum Bergslagen과 Kristianstads Vattenrike 에코뮤지엄을 들 수 있음)
 - 자원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자원활동가들이 문서작성, 연구, 해설자, 방문객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함.
 -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공동 소유-관리-투입,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강조가 에코뮤지엄 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에코뮤지엄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지역공동체의 가치 발견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로,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조사, 발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 다음으로 지역의 사람과 자원이 연합하는 단계로 지역 공동체와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마지막으로 에코뮤지엄이 외부와 관계 맺기를 하는 단계로, 지역을

찾은 방문객 또는 같은 취지를 갖는 단체들과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는 등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7. 나가는 글

- 에코뮤지엄은 보전과 개발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만능열쇠나 만병통치약은 아님
 - 보전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적 절차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임(국내 순천만과 우포늪 사례)
 - 에코뮤지엄이 몇몇 핵심 인물들에 의존하고 있거나 지방정부나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중국처럼 원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나 관에서 주도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에코뮤지엄의 설계와 운영에서 소외되기도 함
 - 이탈리아에서 문화 유산 예산의 대대적인 감축은 피에몬테, 캄파니아, 라치오 등에서 중요한 에코뮤지엄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되기도 하였음
- 충남은 과거 에코뮤지엄이 구상된 바 있으며 현재도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음
 - 충남의 경우 금산군에서 2005년 에코뮤지엄 계획을 수립한 적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로 변모하기 전 연기군의 향토자원과 문화를 보전하고자 하는 에코뮤지엄이 구상되기도 하였음
 - 최근 공주시와 부여군의 백제역사·문화도시, 논산시 강경의 근대역사문화 복원, 서천군의 장항산업단지를 활용한 문화 재생, 내포문화숲길 조성 등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련된 에코뮤지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충남도가 2012년 발표한 『금강비전』에서도 금강 전역을 에코뮤지

업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주요한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음

-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이 충남에서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에코뮤지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에코뮤지엄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꾀할 경우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 판촉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밀접하게 연계된 생태 관광과 문화관광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방문객들은 유산들을 단지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장소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 글에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계, 에코뮤지엄과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의 거버넌스 구성, 지역 공동체의 역량 증진과 더불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따라 도입 목적에 따라 그 종류나 거버넌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지역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 충남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에코뮤지엄 원칙과 실천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참고문헌

- 배은석, 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이천 울면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청구논문.
- 여경진, 2007,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농촌관광연구 14(1), 111-137.
- 충청남도, 2012, 지속가능한 금강의 미래발전을 위한 금강비전.
- Apgar, J. Marian, James M. Ataria and Will J. Allen, 2011, "Managing beyond designations: supporting endogenous processes for nurturing bio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7(6), 555-570.
- Borrelli, Nunzia and Peter Davis, 2012, "How Culture Shapes Nature: Reflections on Ecomuseum Practices," Nature and Culture 7(1), 31-47.
- Corsane, G. et al., 2007, "Ecomuseum Evaluation: Experiences in Piemonte and Ligur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3:2, 101-116.
- Davis, Peter, 2011, ecomuseums: a sense of place (2nd edition), New York: Leicester University Press.
- Maggi, Maurizio, 2009, "Ecomuseums in Italy. Concepts and practices," MUSEOLOGIA E PATRIMÔNIO, 2(1), 70-78.